대한건설협회울산광역시회신임회장

**박상원** (주)태성건설 대표이사

#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주력할 터"

"지역건설경기가매우어려운실정에놓여있어회원사의수주물량확보와 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의 주문이 있음을 알기에 막중한 책임감을느낍니다."

지난 6월제4대대한건설협회울산광역시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주)태성건설 박상원대표이사는취임소감을이렇게피력했다. 현재전국적으로건설시장의70% 수준을 차지하는 민간 건설 경기가 지난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지속적으로 하강 국면을보이고있고, SOC 관련건설 투자도 위축되고있는환경에 놓여 있어 올 들어울산지역건설업체중 공공공사를1건도수주하지못한업체가전체의37%에이르는 등 지역 건설산업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실정이다.

박 회장은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 간 단합을 이끌어내어지역건설업체가함께일어설 수 있도록 물량 확대 및 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협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

당장에비중을두고있는분야는대형공공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이다. 박 회장은"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자체만으로 생색만낼것이아니라지역업체가지역발주공사를충분히수행해나갈수있도록반드시제도개선이우선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 박 회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BTL 사업'을 꼽았다."2005년 도입된BTL 사업은중·소업체에게는맞지 않는 시스템과 공사 규모의 대형화로 지역의영세중소업체들은해당사업수주에나설기회마저잃은실정이며, 이러한BTL 사업 체계는 지금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모습을 안고 있다"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와 관련,"50억원 미만의체육관 및 소규모학교공사는공사의특성상반드시 재정공사로 발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방침"이라고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국제입찰대상공사범위이상규모의대형공사는가능한한적정규모로분할발주를추진하여지자체자체발주를통한지역 중소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도록 할것"이라고덧붙였다.

2006년9월말현재 울산지역건설업체의평균수주액이7건 29억원에그치고있으며, 공공공사 물량은 거의 폭락 수준이라고 표현될 만큼 최악의 상황이다. 다만 최근 울산광역시가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을확정함에 따라 구시가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격 시행될것으로보여지역건설업체들은다소의 희망을 갖고 있다. 박 회장은 "지역 업체 참여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업체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건의할계획"이라고밝혔다.

1990년(주)태성건설을설립하고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1·2·3대 간사와 본회 윤리위원 및 중소건설업육성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건설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박 회장은 '초지일관되게근면하고과욕을부리지말자'는 생각을늘되새긴다고한다."무리하게사업을확장하다보면많은건설업체들이예측하지못한시장 여건으로난관에 봉착하게되는경우가 많다"라며"항상 초심을잃지 않고겸허한자세로기업경영에임해야한다"는것이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대한건설협회울산광역시회회장을맡게되어 어깨가 무겁다"라는 박 회장은"숙제가많은현재의울산지역건설경기회복과회원사들이편안하게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건설환경조성, 그리고지속적인울산지역의 건설시장 수요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다시한번강조했다.

**김희경** · 기자 · khk@cerik.re.kr